

신입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金 興 圭

(仁荷大 教育學科)

1. 머리말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 대학생 시절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시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인사와 문헌에 접하고, 뚜렷한 개성과 상이한 가치관,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폭넓은 인간관계와 활동을 통해 지식인, 교양인으로서의 '조화된 자아'를 함양·성취시킬 수 있는 시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학문이나 인격으로 보아 존경할 수 있는 교수, 선·후배, 동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제각기 뚜렷한 개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연마해 가는 곳이기엔 학생 각자가 지혜롭게 대학생活的 설계를 한 후, 스스로의 시간과 정열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노력함에 따라 자신의 장래와 직결되는 미래의 전문인상을 조각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까닭에 “지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대학”이라는 존·메인스필드의 극찬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의 이념과 정신, 대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뚜렷이 자

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생活과 전공학과에 부적응 현상을 보여 일부는 학업의 중도포기, 전과희망 등으로 표출되고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좌절과 불만, 실의와 박탈감, 불안과 긴장, 소외와 갈등의 감정을 외부 지향적으로 발산시키는 사례를 자주 보아 왔다.

여기에서 신입생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원 밖의 정치·사회현실에 지나칠 정도로 과민하게 참여·간섭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아의 상실, 본분의 망각, 저질 정치문화에의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한국적 풍토병에 걸려버린 것이다. 물론 제 3공화국 이래 제 6공화국까지의 군부통치하에서 대학은 불합리한 정치여건과 관련하여 '학원소요'와 '대학사태'라고 일컬어지는 민주화 투쟁이 계속되어 오랜 정치적 과제와 사회병리, 부조리의 해결에 기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권투쟁, 체제투쟁,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그네들은 정치강박증에 오염되었고 왜곡된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와 저질 정치인들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재연함으로써 대학사회에 '투쟁, 처단, 자폭' 등의 극한 용어가 난무하고 힘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감정적인 공방전이 끊임 없이 정글 사회로 대학사회를 전락시킨 것이다. 그 결과 “대학이 사회불안의 진원지요, 대학생이 급진정치 세력의 첨병”이라는 국민들의 지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자. 대학의 심장부인 교수의 신분, 교수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등뼈(back-bone)로서의 교권, 국가사회의 최고 지성인 대학의 총장의 위신과 권위가 실추·실종된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대학의 기능이 결실·산출될 수 있는가 말이다.

가르쳐야 한다. 신입생 시절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대학이란 고도의 교권존중, 높은 이상과 지성, 고도의 합리성에 의해 움직여지는 특수사회라는 것을……. 감정과 객기와 다중의 현에 호소하는 처신은 대학과 지성인에게 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대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사명, 대학인으로서의 활동의 한계와 범주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2. 신입생맞이의 實態

외국의 몇 개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입생맞이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참고로 고찰해 보자.

우선 미국 대학은 입학식이 없고 전공을 바꾸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공을 바꾸다 보면 10년씩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과 선·후배의 개념이 아니라 모두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 다른 특징은 학교에 고용된 상담교사들이 아주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상담교사가 정해져 있어서 학점관리를 비롯한 심각한 문제들을 수시로 상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전체로 하고,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경우부터 본다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매학기초(1월, 7월)에 약 2일간 캠퍼스의 강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지만, 약 80% 학생의 참석률(94년 신입생 2,000명)을 나타냈고 참가비용은 식사와 유인

물 대금조로 1인당 20달러였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사활동(academic affairs) 소개

① 전공학과 선택에 대한 안내

② 어학시험(language proficiency test) 준비와 어학강좌 수강에 대한 안내 : 어학시험 합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어학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어학 코스(language course) 수강을 위한 배치고사(placement test)를 실시하고 어학시험은 모국어 외의 타언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③ 수학시험의 부과와 관련한 배치고사에 대한 안내 : 전공학과에 따라 수학시험의 의무여부가 결정되고, 대상 학생들에 대한 배치고사가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있게 된다.

④ 등록절차와 수강에 대한 안내

○ 비 학사활동(non-academic affairs) 소개

① 면학 및 학분하는 자세, 요령(study-skill) 등에 관한 안내

② 학생클럽활동의 소개

③ 아르바이트 안내

④ 여가선용, 취미활동, 건강유지 등에 관한 안내

⑤ 도서관 등 학교시설물 이용에 관한 소개 등 이상의 오리엔테이션 활동은 성격에 따라서 교수, 직원 또는 학생대표(student leader)가 맡아서 실시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강당에서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150~200명 규모로 분반하여 실시하되, 여러 반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학교요람과는 별도로 신입생을 위한 안내책자(Student Hand Book, 141면)를 배부하여 읽도록 하고 있다.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년에 두 번(1월과 8월) 신입생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소규모 단위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학기 시작 전

에는 부모들과 함께 참여하여 학교소개와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단체, 기업체의 방문(관람)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외국학생들을 위해서는 미국 가정(host family)을 소개해 준다거나 일 대 일 면담제도(peer advisor)가 있다. 이 peer advisor 제도는 학부의 경우 4학년 학생이 신입생을 약 1주일간 학기 시작전에 동행하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대학원생일 경우 박사과정 학생이나 조교들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여간 우리나라처럼 신입생 전체를 한 곳에 집합시켜 놓고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없다.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과목 수강신청요령 안내
- ②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 ③ 계열별 모집에 따른 학과선택 요령 안내
- ④ 장학금 신청방법 안내
- ⑤ 학교시설 이용방법 소개

특기할 사항은 전문 안내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형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으며, 학기 초에는 지도교수별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학교요람과는 별도로 신입생들이 읽어야 할 안내책자(college, independent study bulletin credit and non-credit, 40면)와 학부형에게 총장의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모용 팸플릿(Parents Hand Book, 23면)이 배포되어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무어 대학(Moore College)이나 드렉슬 대학교(Drexel University) 그리고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 등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무어 대학이나 드렉슬 대학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한 유인물을 배포한 다음, 학과에서 학업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템플 대학교의 경우는 하와이 대학교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 작은 팸플릿(New Student Orientation, 10면)을 배부하여 신입생 지도에 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통계자료(Demographic data)를 자유스럽게 검토케 한 후, 배치교사의 실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즉, 오전시간에

먼저 영어배치교사(English Placement Examination)를 치르고 선택 프로그램(Elect program)의 코스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는다. 그 다음 수학배치교사(Mathematics Placement Examination)를 실시하고 오후 시간에는 불어, 독어, 현대 그리스어, 이태리어, 라틴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배치교사를 치르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2일간에 걸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단과대학별로 15~20명씩 신입생 편성
- ② 학교의 소개
- ③ 주택(Housing) 관계의 안내
- ④ 학생 의료보험의 안내
- ⑤ 등록과 수강신청 안내
- ⑥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학경찰의 안내와 이용방법 등의 지도

끝으로 독일의 본 대학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없다. 신입생 전부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도 없고, 각과의 특성에 맞게 학기 시작때 하루 또는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과 그에 필요한 조건들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친다.

굳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말을 찾는다면, 신입생을 위한 학업안내(Studienberatung für Studienanfänger)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과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점에 관한 정보, 학과와 관련된 직업, 직장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학문적인 요구에 관한 정보들인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안내자는 학과의 교수와 조교들(한국의 조교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이다. 각과에서는 위와 관련된 상담을 전담하는 교수가 1명씩 있고 학기중에는 매주 3시간을 학생들의 상담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이같이 학기초에 행해지는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과 및 학업과 관련한 독일의 상황 소개
- ② 학과의 졸업과 관련된 직업선택 가능성, 진로 문제 소개

- ③ 학업에 요구되는 시험과 졸업을 위한 조건 소개
- ④ 학문적 방향에 관한 전망과 소개
- ⑤ 수업과 관련된 정보, 예컨대 리포트 작성, 발표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지도
- ⑥ 학교의 관련시설(도서관, 학교식당 등) 사용방법 안내

그밖에 특기할 사항으로는 교육학과와 경우, 첫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될 과목 중에는 일주일 예정으로 주변나라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을 돌아보는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한마디로 단정지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강의실에서 학과별로 학생안내 책자(학교요람)를 배부하고 교수소개에 이어 지도교수의 인사말, 조교가 수강신청 요령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간략형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둘째로 교내에서 대학별로 모아놓고 학장인사와 교수소개, 저명인사의 특강을 들은 후 강의실로 옮겨 각 학과별 교수소개와 교수들의 인사말, 수강신청요령, 전반적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내실형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여기까지의 두 유형은 학교당국이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는 패턴이다. 그러나 셋째 유형은 학교당국이 등록금 고지서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비를 받아 학생회로 하여금 오리엔테이션을 시행케 하는 경우이다. 대개의 경우 버스를 대절하고 숙박업소를 예약, 2박 3일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이 유형은 특강인사의 수준도, 강의 내용도 모두 함량미달임은 물론 신입생들을 부정적으로 의식화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교적적인 유형의 오리엔테이션이다.

3. 신입생맞이의 模型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모형에 대해서는 각자의 강조점과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입생맞이의 모형에서 포함되고 취급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견제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철저히 그리고 내실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 형태는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1) 단과대학별 신입생맞이 프로그램(제 1일)

대학별 신입생을 모아 놓은 다음 학장의 인사말과 교수들의 소개를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명인사의 특강을 준비한다. 특강원고는 반드시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

첫번째의 특강은 '대학이란 어떤 곳인가'의 주제로서 대학의 이념과 정신, 대학인의 본분과 사명, 대학의 기능에 대해 역설하고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고 지성인의 자질로서 함양시켜야 할 덕목인 역사적 시각, 과학적 시각, 철학적 시각, 예술적 시각, 종교적 시각, 복합적·통찰적 시각, 국제적·문화적 시각에 대해 일깨워 준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운신과 의사표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다.

두번째로 '21세기 정보사회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특강이 필요하다. 대학 신입생들은 시험 위주의 공부만 한 세대들이며 수험준비서 외에는 읽은 책이란 별로 없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21세기에 관한 많은 문헌들의 내용을 들려주고 읽어야 할 책들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도래할 21세기가 어떤 사회인지를 인식시키고 그 시대에 주역이 될 장본인들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깨우쳐야 한다.

예컨대 존 갈브레이드가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 1976)에서 주장한 다섯 가지의 사항이라든지 나이스비트(Naisbitt & Aburdene)가 『메가트렌드』(Megatrends, 1990)에서 밝힌 10가지의 특징,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1988)에서 밝힌 8가지의 특징,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새로운 현실』(The New Realities, 1989)에서 언급한 9가지 사항, 다니엘 벨이 『1990년대~21세기의 윤곽』(In the 1990-The Outline of the 21st Century, 1990)에서 지적한 5가지의 내용, 『2000년대의 신세계 질서』(The New World Order toward the 21st Century, 1991)에서

지적한 6 가지 특징,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1970)과 『권력이동』(Power Shift, 1990)에서 전망한 미래사회의 특징들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밖에 프리호다의 『미래의 50년』(1987)이란 공상소설이나 불란서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가 전망하고 있는 9 가지의 변화내용이라든지 『트렌즈 저널』잡지의 발행인인 제럴드 셀린트가 예측한 9 가지 변화현상 등에 대해서 들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신입생인 자신들이 주역이 되어 활동할 '21세기 사회는 과연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케 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세번째로 '21 세기의 한국의 사회상과 요구되는 한국인상'에 대한 특강도 필요하다. 21 세기에 한국사회가 어떠한 특징과 모습(사회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한국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발간한 『교육발전의 기본구상』(1991. 2)에서 밝힌 21 세기 한국의 사회상의 5개 항목이라든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으로서 4 가지 사항, 그리고 21 세기 위원회의 세미나에서 밝힌 幸世浩의 주장(4 가지 사항)과 李相周의 견해(4 가지 사항) 등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요구되는 한국인상과 관련하여 한국 교사교육연구협의회 주최의 '21 세기에 대비하는 교사교육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세미나(1990. 9)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펴낸 『교육발전의 기본구상』(1991. 2)에서 지적한 9 가지 덕목, 교육과정연구위원회(1991. 9)에서 강조하는 '한국의 미래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인간상'으로서의 4 가지 특성과 3 가지 자질 등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한국교육학회 창립 40주년 학술세미나의 기조강연(1993. 10)에서 밝힌 김태길의 견해라든지, 한국 카운슬러협회 주최의 연차대회(1992)에서 '국제화 시대의 청소년상'이라는 제하의 기조강연에서 주장한 김우중의 견해, 공성진의 '21 세기 한민족의 길, 한국인의 소명'에서

밝힌 5 가지 사항들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

2) 학과별 신입생맛이 프로그램(제 2 일)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수의 소개, 조교 및 학생간부의 소개를 마친 후 교수 한 사람(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이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로 저명인사의 특강을 마련한다.

첫째, '학문하는 방법과 자세'라는 주제의 특강이다. 김원중이 중·고등학생 160 명에 대해 '공부방법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암기하기'에 강한 반면 '공부계획 세우기'나 '노트정리'와 '시험준비'는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공부방법에 익숙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대학에서 학문하는 데 결정적인 취약점이 된다고 본다.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중학생이 교과서의 중요부분을 모르고 암기만 한 대서야 말이 되는가. 적극적 공부방법, 즉 탐구 자율학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 유학의 문제, 계획, 전망 등에 대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자국 대학의 실례를 들면서 학문적 자극을 입학초기부터 환기시키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의식개혁'에 대한 특강이다. 이 경우 오늘의 청년세대와 대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진 세대인지를 우선 고찰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입생들은 6·25와 같은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보릿고개와 같은 배고픔도 겪어 보지 못했으며, 홀린 밥 한 톨을 주워먹고 터진 양말을 꿰매어 신는 궁핍함과 절약의 체험도 없었으며, 수년전 전국을 통곡의 분위기로 몰아넣은 이산가족의 비극도 맛보지 못한 세대라는 점, 핵가족화의 변모된 가정 환경에서 귀여움과 사랑[偏愛]을 독차지하며 자라났고, 경제의 발달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제도 밑에서 서구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발달·성숙한 세대라는 점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

온 기성세대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그네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여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등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무모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이기주의와 타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에 대화와 토론에서 갈등과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켜 주고, 회의와 각종 모임에서 단층과 단절현상을 더욱 조장함으로써 크나큰 체험의 격차, 시각의 격차, 역사의식의 격차, 가치관의 격차를 실감케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 결과 세대간, 정당간, 지역간, 계층간, 노

사간, 성별간 단층·단절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현대사회를 일컬어 '斷絶의 時代'나 '斷層의 時代'라고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느 세대의 가치관, 의식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므로 각 세대의 가치관 등을 소개·비교하면서 상호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생활자세를 갖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식에서 키워야 할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한 후, 참고로 읽어야 할 문헌을 추천해 주는 선에서 특강을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신입생맞이 마지막날 제 3일은 학생회에 맡겨 교가를 연습하고 학과 선후배간의 대화 등 학과 학생회의 자율적인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